

# 투기판 우려되는 미술시장



홍경안  
시시일각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미술품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작품을 구매하는 이들의 평균 연령도 하향화됐다. 그중에서도 MZ세대(밀레니얼과 Z세대를 합친 말)의 부상은 동시대 아트마켓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이다.

세계 최대 아트페어 주관사인 아트바젤과 후원사인 UBS가 펴낸 '2021 미술시장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과 영국, 중국, 멕시코 등 10개국 고액 자산가 컬렉터 2569명 중 56%가 20~30대가 주축인 MZ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초반부터 50대 중반인 X세대가 32%로 뒤를 이었다. 20대에서 50대가 전체 컬렉터의 80%가 넘는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키아프(KIA F·한국국제아트페어) 방문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키아프 서울 2021 리포트'에 따르면 처음 키아프를 방문한 53.5%의 관람객 중 MZ세대인 21~40세가 60.4%로 반 이상을 차지했다.

MZ세대가 시장의 주류가 되자 화랑과 경매사들은 그들이 원하는 작품을 발빠르게 내걸었다.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미술 시장 출품작들이 다양해졌다. 소유와 공유의 개념이 보편적인 MZ세대는 미술품 투자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2018년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동구매나 조각투자,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의 새로운 투자방식이 생겨났다.

MZ세대에게 미술품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투자해 돈까지 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무엇보다 매력적인 아이템이다. 그들에게 미술품은 '나'를 드러내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면서 취미가 돈이 되는 '상품'인 셈이다.

널뛰기하는 주식과 가상자산에 비해 안정적이라는 것도 미술품 투자의 장점으로 꼽힌다. 미술품은 각종 세금의 제약에서도 자유롭다. 수익률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투자 요소다. 작든 크든 투자 대비 이익의 비중만 놓고 보면 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 일부 거장들의 작품을 제외하면 그들이 선택한 작품들의 경우 대체로 예술성을 논하기 어렵다. 실제 MZ세대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아 없

어서 못 판다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미학적, 미술사적 가치 면에서 한계가 있다. 때론 기초가 부족한 아마추어 작품이 부풀려졌다는 인상도 준다. 하지만 아트페어가 열릴 때마다 특정 세대가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 작품을 싸쓸이하다시피 한다.

MZ세대의 미술품 구입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작가 소비' 외의 미적인 게 없다. 이는 작가 및 작품의 내용 따위엔 아무 관심 없이 작품가격과 판매 여부만 묻는 현실이 잘 증명한다. 지속 가능한 투자보다 주기가 짧은 단타 형식의 미술 투자로 돈만 벌면 그만인 것이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일부 미술시장 관계자들은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설픈 작가 작품에 '신선하다', '새로운' 등의 형용사를 남발한다. 심지어 점쟁이마냥 "이 미술품을 사 놓으면 오른다"는 식의 무책임한 전망을 내놓거나 거장의 꼬리표에 젊은 작가의 이름을 붙여 신화화하는 무리수까지 둔다. 역시 돈을 벌기 위해서다.

하지만 미술시장이 작가를 보호하지 않는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면서도 자정 노력 없는 행태는 시장의 수명을 단축시킬 뿐이다. 이런 양태라면 오늘의 호황은 3년을 채 못 갈 것이 자명하다. /미술평론가

# '코리아 디스카운트' 오명 벗으려면



기지수첩  
구남영  
(파이낸스&마켓부)

얼마전 외국인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화두였다. 처음에는 시장에서 가격을 흥정하는 것을 뜻하나 싶었지만, 각종 횡령 범죄에도 경영진이 책임 지지 않는 국내 경영 시스템을 조롱하는 말이었다. 이에 기자는 국내 횡령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해 평균 4만6000건 정도의 횡령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무려 10년 사이 횡령 범죄는 두 배 넘게 늘었다.

이 과정 가운데 흥미로웠던 점은 횡령 범죄로 걸려든 인원 중에는 남성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다. 횡령 사건의 피의자 중

남성은 평균 2만8000명에 이르지만 여성은 평균 7100명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내부회계관리 담당자는 대부분 '여성'을 고용한다는 점이였다. 이는 남녀차별이 아닌, 외부적인 이익보다 도덕성을 중시하는 성향이 '여성'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외국에서는 금융사 사고 발생 시 해당 기업이 존폐 기로에 서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컴플라이언스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관련 보고서 작성 내용이 부정확하다면 최대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여기에 기업개혁법 '사벤스-옥슬리법'을 기반으로 상장 기업들이 사내 회계감독위원회에 금융전문가 한 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영국도 고위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법적 의무'로 설정했으며 금전 처벌도 상당하다.

반면 한국은 경영진에 대한 금전적 처

벌 관련 규정이 없다. 특히 처벌 수위는 개인에 대한 인적 징벌 수준에 불과하다. 업무상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법 제 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정도다.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으며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국내 금융범죄조사 담당자에 따르면 국내의 횡령 방지 방법으로는 '처벌'과 '통제' 두가지로 구분된다. 이에 처벌 수위를 강화하면 금융범죄의 사전 예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처벌을 강화해도 내부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횡령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진과 회사의 책임은 배제된 채 개인의 경미한 처벌로 책임이 끝난다. 결국 피해는 사고와 무관한 주주에게 돌아간다.

/koogija\_tea@metroseoul.co.kr

## 오늘의 운세 5월 18일 (음 4월 18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어린 사람과 닮아 생기니 조심. **48년생** 눈앞의 실속보다 내일을 준비하자. **60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다. **72년생** 승진하고 좋은 일이 있다. **84년생** 어제부터 시작한 일에 마무리가 작게 실리가 이어져도 감사함.
- 37년생** 만나는 즐거움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찾아라. **49년생** 돼지띠와 계약이 잘 성사. **61년생** 간교함이 있으니 의지가 필요. **73년생** 격한 말은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85년생** 변명을 멀리하고 자신의 일에만 전념하여 일구어라.
- 38년생** 친구에게 양보할 일이 있다. **50년생**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 **62년생** 이사해도 재활동으로 낭비를 줄여야 한다. **74년생**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자. **86년생** 이직으로 우렁차워지지 말고 한 우물을.
- 39년생**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마라. **51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격. **63년생** 아니라고 생각될 때 바로 잡아야 한다. **75년생** 주변의 도움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87년생** 주식투자 전에 먼저 공부를 시작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40년생** 오늘의 자식은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 **52년생** 조상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하루. **64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저절로 굴러온다. **76년생** 내가 편안해야 일도 잘 풀린다. **88년생** 여행으로 지출이 많아지니 사전계획을 꼼꼼히.
- 41년생** 후배의 참석으로 모임이 즐겁다. **53년생** 사람 만나는 것이 피곤한 하루. **65년생** 집안 청소하고 분위기를 편안하게 시간을 가져보라. **77년생** 무대위가 가면 그는 덕은 잇는 법이니 마음을 비워라. **89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시작.
- 42년생** 작은 먼지가 신경을 거슬린다. **54년생** 초대된 손님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 **66년생** 때 이른 욕심이 너무 과하여 낭패를 본다. **78년생** 나의 기술을 다른 사람도 인정. **90년생** 금할수록 돌아갈라 했으니 서두르지 말고 실패를 풀자.
- 43년생** 자기진단 하지 말고 병원을 가보자. **55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다시 시작을 하자. **67년생** 횡재수로 재물이 온다. **79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91년생** 너 자신을 알라처럼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아니다.
- 44년생** 무지개를 쫓아나 잡지 않는다. **56년생** 거품은 사라지고 현실에 직면. **68년생** 삶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라. **80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92년생** 오늘부터 가계부를 써보면 하루하루가 달라질 것을 느낀다.
- 45년생**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야 하는 날. **57년생** 먼저 주는 것이 더 큰 것을 받는다. **69년생** 그동안 노력한 대가로 경제적 여건이 호전. **81년생** 고통과 실패는 큰일의 밑거름이다. **93년생** 병도 약도 좋은 일은 많은 사람에게 알라라.
- 46년생** 인생사 모란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자중. **58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70년생** 타인의 실수가 내게 덕이 되어 돌아오지만 어찌 편치 않다. **82년생** 기대가 커서 서운함도 크다. **94년생** 불만이 있어도 차분히 고쳐나가고록.
- 47년생** 동서남북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처리. **59년생** 하나를 뿌리고 열 개를 얻는다. **71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메모하라. **83년생** 밤이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 **95년생**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것에 실망 말고 약속부터 실행하여.

# 김상희의四季 과거는 아름답다

문화재의 가치는 오래된 시간에 비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때 오래된 것은 낡고 버려져야 되는 거주장스러운 것으로 치부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복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이제는 사고 싶어도 가격이 부담돼서 쳐다만 보게 되는 상황으로 반전되었다. 필자의 어린 시절만 해도 어느 집이나 한두 개는 있던 단판이도 그러하거니와 제대로 된 상취급도 받지 못하던 개다리소반까지도 귀한 전통품목으로 대접받고 있다. 봄꽃이 만연한 지난 휴일에 인사동에 나갔다가 다리 선이 날렵한 작은 소반 하나를 보게 되어 찾장을 하면 좋겠다 싶어 가격을 물어봤다. 주인이 부르는 가격이 무려 신입사원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필자의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간식을 담아 밀어주시던 소반이 눈앞에 아른거리면서 그냥 돌아서 나오는 필자에게 주인이 덧붙이는 말인즉슨 옷 칠을 한데다가 장인의 작품이란다. 이런 풍토가 조성된 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력이 몰라보게 성장하고 발달한 덕분이다. 6~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낙후 국이었던 한국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만도 어려워 우리의 전통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게다가 일제 때 그들은 한국적인 것은 무조건 촌스럽고 버려져야 할 후진 문화라는 인식을 주입시켰다. 그런 와중에도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내심 동경했던 그들은 귀중한 한국의 문화재 보물들을 빼돌리는데 전력을 다했다. 지금도 환수되지 못한 각 방면의 문화재와 유물들이 셀 수 없을 정도이며 조선 말기 제국주의 초기에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 찬탈당한 한국의 문화자산을 그 나라들의 박물관에 가서 봐야하는 형편이다. 촌스러운 과거란 없다. 이제는 무조건 아름다운 시절이 되었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토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등호 스토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를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5	7				4	6	
			1					5
	2			4				7
	8		7			1		
		4		1			7	
			8					9
6				2		5		1
	9							

7		4				8		
				3			9	
3	7	1						5
							4	
		9						
2			5		3			6
	6			4				
		5			9			8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정답**

4	8	9	1	2	3	5	6	7
1	5	6	2	7	8	4	9	
6	2	3	9	9	8	1	4	5
2	1	6	8	1	9	7	5	9
9	7	1	5	9	2	8	6	
5	9	8	7	6	2	9	1	2
2	1	5	9	7	9	6	2	8
9	6	2	2	8	1	5	9	7
8	9	7	2	5	6	2	9	1

2	8	5	6	2	9	9	1	7
6	2	9	7	2	1	5	9	8
7	9	1	5	8	9	2	6	2
2	5	2	9	1	8	6	7	9
1	6	7	2	9	5	2	8	9
8	9	9	2	6	7	1	2	5
9	7	6	5	5	2	8	2	1
9	1	2	8	9	6	7	5	2
5	2	8	1	7	2	9	9	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